



## LA한국교육원, “2025-2026 올해의 우수강사” 9명 시상

- 뿌리·성인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우수강사 9명에 상장 및 부상 수여
- 20년 근속 한국어 강사 등 수상...우수강사 발굴 통해 교육의 질적 성장 견인

- LA한국교육원(원장 이병승)은 뿌리·성인평생교육 발전에 기여한 “2025-2026 올해의 우수강사” 9명을 선정하고, 지난 7월 7일(화) 시상식을 개최해 상장과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.
  - 지난 2002년 시작된 LA한국교육원의 뿌리·성인평생교육은 연간 80여 개 강좌에 2천여 명이 수강하는 인기 프로그램으로, LA한국교육원은 강의 질을 높이고 강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수강사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습니다.
- 이번 우수강사는 2025-2026년도 뿌리·성인평생교육 정규 강좌를 담당한 50여 명의 강사 중 수강생 만족도, 강좌 수료율, 커리큘럼 혁신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9명이 선정되었습니다.
  - 뿌리교육 부문 (6명): △김명희(한국어2-1반) △이안젤라(점토공예반) △임태혁(의미로다듬는한국어반) △최은아(한국전통무용반) △한수미(종이접기반) △허윤정(한국어3-1반) 강사가 열정적인 강의를 통해 한인 유·청소년들의 정체성 함양과 자긍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.
  - 성인평생교육 부문 (3명): △노희경(컴퓨터·스마트폰반) △장경선(가야금반) △황미란(민화반) 강사가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여 한인 동포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아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

□ LA한국교육원에서 진행된 이날 시상식은 수상자와 가족, 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, 수상자들은 저마다 소감을 밝히며 기쁨을 나눴습니다.

○ 지난 20여 년간 LA한국교육원에서 한국어 강좌를 담당해온 임태혁 강사는 “2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교육원에서 한인 차세대들을 만나온 시간 자체가 큰 보람이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감사하다”며 “앞으로도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.

○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강사로 선정된 이안젤라 강사는 “수업 시간은 저에게도 힐링이 되는 소중한 시간인데, 이렇게 뜻깊은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”며 “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”고 소감을 밝혔습니다.

□ 이병승 LA한국교육원장은 “뿌리교육과 성인평생교육이 한인사회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강사진의 열정과 노고 덕분”이라고 감사를 표하며 “앞으로도 뛰어난 역량을 가진 강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배움의 기쁨이 넘치는 교육원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습니다.

붙임 : 사진 3부. 끝.

<b>LA한국교육원</b> 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	담당자	부원장      홍길동
		☎ 213-386-3112 ( <a href="http://www.kecla.org">www.kecla.org</a> )

<사진 1> LA한국교육원 '올해의 강사상' 수상자와 관계자들



<사진 2> LA한국교육원 '올해의 강사상' 수상자들



<사진 3>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는 허윤정 강사

